

연구총서 03-12

# 북한의 후계자론

이 교 덕

통 일 연 구 원

## 북한의 후계자론

---

 목 차

<b>I. 서론</b> .....	1
<b>II. 후계자론의 연원</b> .....	4
1. 수령론 — 4	
가. 수령 · 4	
나. 수령의 지위와 역할 · 10	
다. 수령의 영도체계 · 15	
2. 계속혁명론 — 18	
가. 계속혁명의 필연성 · 19	
나. 계속혁명의 원칙 · 21	
다. 계속혁명과 후계자 · 24	
<b>III. 후계자론</b> .....	26
1. 후계자론의 등장 — 26	
2. 후계자론의 내용 — 34	
가.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 · 34	
나. 후계자의 요건 · 38	
다.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 · 45	
<b>IV. 김정일의 후계자</b> .....	51
1. 부자세습 경우 — 55	
가. 김정남 · 59	
나. 김정철 · 61	
다. 김정운 · 64	
2. 부자세습이 아닐 경우 — 66	

V. 결론 ..... 74

참고문헌 ..... 80

◆  
표 · 그림목차

<표 1> 기수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학력분포 — 53

<그림 1>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계도 — 58

## I. 서 론

북한의 절대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미 환갑을 넘겼다. 이는 김일성이 생전 환갑을 전후해 자신의 후계자 선정에 들어갔던 전례에 비추어 김정일도 자신의 후계자를 선정하거나 후계자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연령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부친이 사망한 뒤 매우 정신 없는 나날을 보내느라 그동안 후계자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세대교체와 함께 후계 문제를 생각할 때이다.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 문제에 관해 공식 언급한 어떤 흔적도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후계자 문제를 다루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바탕을 두고 김정일에게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나타났던 후계자론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김정일의 후계자 선정에 관한 골격을 제한적이거나 추측해 볼 수 있다.

후계자론은 북한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부자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이다. 북한 스스로 ‘후계자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나 후계 문제를 언급하고 설명한 몇 가지 문헌 속의 내용에서는 일정한 논리체계나 일관된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 
- 1 김일성은 환갑을 쉰 1972년 4월 22일 “나도 이제는 환갑이니 늙었고 동지들도 늙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할 일을 다하지 못했습니다...우리 혁명 대오의 핵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우리 혁명의 교대자, 계승자들을 잘 키워서 혁명의 대를 꾸꿏이 이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인민들속에서』, 제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7-28.
  - 2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출판지, 출판사 불명, 1989), 김유민, 『후계자론』, (출판지 불명: 신문회사, 1984)이 있다.

## 2 북한의 후계자론

물론 북한의 후계자론이 먼저 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될 경우 그를 정당화하기 위한 또 다른 논리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론이 현실에서의 실천을 낳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대부분의 이론은 이미 있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후계자를 합리화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가 등장할 경우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하고 그의 후계체제를 확립할 때 동원된 논리들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후계자론의 골격은 북한에서 신성불가침적 성격을 지닌 주체사상과 수령론 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후계자론의 몇 가지 내용은 주체사상이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고수되는 한 유지될 것이고 김정일의 후계자를 추대할 때 동원될 후계자론의 기초가 될 것이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후계자론은 권력을 상징하는 세속적인 국가직책이 아니라 북한의 절대적 통치자를 의미하는 수령의 승계를 기본적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현재의 수령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실질적인 권력이양을 제약하는 논리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후계자론은 후계자란 어디까지나 수령의 대를 잇는 미래의 수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금의 수령이 살아있는 한, 수령승계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후계자론은 김정일의 통치를 가능하게 한 논리적 토대였던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후계체제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도 김정일에 의한 완전한 권력승계를 제약하는

---

후지는 동경의 구월서방이 1986년에 번역 발행했다.

축쇄였다.<sup>3</sup>

또한 다른 한편으로 후계자론에서의 후계자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최고의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직책에의 취임이 이론적으로는 급한 것도 아니다. 이 점이 부친의 사망 이후 ‘유훈통치’를 표방한 상황에서 김정일이 곧바로 국가주석이나 노동당 총비서가 되지 않은 논리적 배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중성을 가진 후계자론의 논리적 구조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 이후의 후계체제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김정일 이후의 후계체제를 조망함에 있어 본 연구는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을 상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여러 국가적 난제가 해결되기 어렵고 그래서 내부적 안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비중을 두면 김정일의 뒤를 잇는 후계체제는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갑작스런 방식으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여기서는 급변사태에 따른 후계체제를 다루지 않는다. 후계자론은 본질상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상정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논리이므로 후계자론 자체에 대한 논의와 급변사태의 상정은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거에서 본 연구는 후계자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후계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후계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등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3 곽승지, “북한의 후계자론과 권력승계 과정” 『안보연구』, 제23호 (1998), p. 35.

#### 4 북한의 후계자론

### II. 후계자론의 연원

북한의 후계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령론과 계속혁명론을 살펴 보아야 한다. 특히 수령론은 후계자론의 이론적 모체이자 출발점이다. 개인의 초인적인 능력과 인격을 전제한 수령론은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중심 명제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근간으로서 권력승계의 대상을 밝힌 것이다<sup>4</sup>

또한 후계자론은 권력승계를 단순한 권좌의 승계가 아니라 혁명위업을 계승하는 차원으로 이론화한 계속혁명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인데, 계속혁명론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혁명위업이고 수령의 영도밑에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라는 수령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권력승계 합리화의 논리적 위계구조는 주체사상 → 수령론 → 계속혁명론 → 후계자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겠다.

#### 1. 수령론

##### 가. 수령

수령론이란 ‘수령문제에 관해 전개한 혁명이론’으로서 모든 것의 중심에 인민대중이 있고 인민대중의 중심에 수령이 있다는 논리로 요약된다.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중심 명제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물질이나 정신이 아닌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당

---

4 양범직, “북한의 권력 승계 문제와 경제 정책 변화,”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편, 『북한 경제의 오늘과 내일』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p. 319.



을 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고, 그 기초인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5</sup> 따라서 주체사상 속의 인간은 사회의 물질적 토대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인 유물론 속의 인간과는 달리 모든 것의 주체로서의 인간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따르면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이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자주성이란 인간이 다른 생명물질과는 달리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 예측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사회적 속성이며, 창조성이란 것은 목적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이며, 의식성이란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속성으로 설명된다. 주체사상은 이런 인간관에 입각하여 자연과 사회를 사람에 의한 개조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런 개조과정을 통해서 사람 자체의 지위와 역할도 높아진다고 주장한다.<sup>6</sup>

이와 같은 사람 중심의 철학적 원리는 북한의 역사관인 ‘사회역사원리’의 기본 토대를 이룬다. 북한의 역사관도 유물사관처럼 역사는 합법칙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발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며 “사회력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

5 리성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58-141.

6 리성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pp. 171-246.

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사회역사원리가 도출된다?<sup>7</sup>

여기서 말하는 인민대중이란 “사람집단 일반이 아니라 사회의 존립과 진보를 보장하는 특정한 사회집단”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노예소유자 사회에서는 노예와 평민이, 봉건사회에서는 농노와 농민·수공업자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계급과 농민이 인민대중의 기본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인민대중의 계급적 구성은 사회역사 발전과정에 따라 변화된다. 이런 논리로부터 인민대중은 “력사발전의 각이한 모든 시기에 사회적 예측과 구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데 리해관계를 가지며 자기의 로동활동이나 실천투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집단”으로 정의된다.<sup>8</sup>

결국 주체사상 의 사회역사원리에서 인류의 역사는 이런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과 모든 사회적 예측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단 이러한 투쟁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자신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해 결정적으로 실현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수령의 령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민대중은 그 자체로서는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운명개척의 길을 알지 못하며 자기의 생활적 요구를 실현하려는 욕망과 념원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현실로 전면시킬 방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9</sup> 따라서 수령이라는 존재는 당과

7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8-344.

8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p. 117.

9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p. 203.

인민대중의 지주적 사상의식을 이끌어내는 전일체(專一體)로 규정된다. 다음의 글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왜 ‘수령의 올바른 지도’가 필요한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조건에서나 스스로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은 개별적 성원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은 조직되고 단결된 집단이다. 인민대중은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전일성과 조직성을 가질 때에만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인민대중은 현실적으로 개별적 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지와 리해관계, 지향과 요구를 달리하는 여러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속하는 계급과 계층들, 개별적 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에 묶어세우는 올바른 지도를 떠나서 인민대중은 집단으로서의 전일성과 조직성을 가질 수 없다.

인민대중은 옳은 지도를 받을 때에만 그 개별적 성원들과 계층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지향과 요구를 가지고 통일적으로 활동하는 공고한 집단으로 될 수 있으며 조직되고 단결된 전일적인 대오로 될 수 있다. 올바른 지도는 결국 인민대중에게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조직성과 전일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게 한다.<sup>10</sup>

---

10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p. 200, 2002.

## 8 북한의 후계자론

이처럼 북한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대중이 아니라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대중으로서 주동적 작용과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지도와 대중이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거에서 인민대중은 노동당과 수령의 영도와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른바 ‘수령·당·인민의 삼위일체 원칙’이 도출된다. 이 삼위일체의 원칙에 따라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탁월한 정치적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

김정일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력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는 특히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공산주의운동은 그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운동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것만큼 옳은 지도가 없이는 승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입니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자

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그를 옹기 운영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sup>11</sup>

위에서 보듯이 ‘대중과 지도의 결합’이라는 명제가 바로 주체사상에서 수령론이 도출되는 원천이다.

수령론은 역사발전에서 수령의 역할을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수령의 영도 하에서만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인민의 역할을 중시하는 역사적 유물론과 결정적으로 다른데, 이것이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론임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은 수령을 “인민대중의 지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으로 되는 분으로서…로동계급의 력사적 임무, 계급적 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의 방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며…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는 현명한 령도자”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수령은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을 창시하고 혁명승리의 전망을 제시하며, 인민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혁명승리의 조건을 마련하며,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당을 비롯한 혁명조직을 창건하여 혁명무기를 마련하며, 노동계급과 당을 영도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등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

1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57-158.

그러므로 북한에서 수령은 국가주석이나 노동당 총비서와 같은 권력의 핵심 직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직위의 상위에 있는 절대권자를 지칭한다.

#### 나. 수령의 지위와 역할

수령론의 핵심 주제는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에 관한 것이다. 수령론에 따르면 수령은 인민대중 속에서 최고의 영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다.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라는 것은 인민대중의 조직적 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이자 대표자라는 것을 뜻한다. 즉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성에 대한 자기의 지향과 요구를 조직적 의사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처럼 어렵고 중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수령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발전과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수령이다. 김정일은 수령이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뇌수가 인간활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였다.

인간활동에서 뇌수의 지위가 그러하듯이 수령의 지위는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인민에게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인식하여 수령을 진심으로 최고 지도자로 모시려는 자세와 입장이 요구된다. 곧 수령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드는 견해와 관점이 강요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이다.<sup>12</sup>

---

12 혁명적 수령관에 대해 김정일은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라는 확

‘혁명적 수령관’에서는 수령만이 역사발전의 주체이고 수령은 무오류의 인간으로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수령만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모든 인민들은 의심없이 무조건적으로 수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특히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지들과 담화하는 가운데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주민이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sup>13</sup> 이처럼 ‘혁명적 수령관’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이에 기초해 1980년대에 재정립되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란 사회정치적 존재인 개개인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하면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골자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제시되었으나 이 담화에서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고 여러 단계에 걸쳐 발전되어 온 것이다. 예를 들면 1959년 9월 김일성은 황해제철소 당위원회에서 “당원에게 있어서 당생활은 정치적 생명입니다.

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들어 나간다는 것”이라고 교시했다. 김정일, “일군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8월 23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77.

13 담화의 내용은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당원이라면 마땅히 내가 당에 든 것은 나의 정치생활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며 혁명투사로 살기 위한 것이다, 당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당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라고 함으로써 ‘정치적 생명’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sup>14</sup> 그 후 그는 1964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다시 ‘정치적 생명’에 대해 언급했다.<sup>15</sup> 김정일도 1965년 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관계자들과의 담화에서 “사람과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거의 다 정치적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sup>16</sup> 특히 1972년 9월 1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회견에서 김일성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 지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하여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주장했다.<sup>17</sup> 1972년 12월 16일에도 그는 “사람의 육체적 생명은 부모

---

14 김일성,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자,” 황해제철소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59년 9월 4일, 『김일성 저작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380.

15 김일성,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12월 19일,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501.

16 김정일,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1월 8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64.

17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 <마이니치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9월



가 주지만 정치적 생명은 당이 줍니다. 당에서는 사람들을 무료로 공부시켜 주며 공산주의사회의 역군으로 키워줍니다. 물론 사람의 육체적 생명도 중요하며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에게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 래야 청년들이 부모곁을 떠나서도 혁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살기도 보람있고 정치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정치생활을 떠나서 밥이나 먹고 인일하게 가정생활이나 한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역설했다.<sup>18</sup>

1974년 4월 14일 김정일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제8항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고,<sup>19</sup> 1982년에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데 이어 1986년의 “주체사상교양에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정식화했다.

“주체사상교양에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 따르면 사람의 생

17일,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396.

18 김일성, “새로 배치된 사로청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도 사로청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1972년 12월 16일,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545.

19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년 4월 14일),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14.

명에는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후자는 전자보다 귀중하다. 또한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룰 경우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영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지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sup>20</sup> 달리 말하면 개별적인 인민은 오직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이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영생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 인민은 사회정치적 집단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이 중심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이고 당이 그 ‘중추’가 되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담당자인 일반대중을 지도하게 된다.

그래서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정치사상적 및 도덕의리적 품성”이라고 주장된다.<sup>21</sup>

이러한 글자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 북한이 달성하고자 한 것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고 인민대중을 수령과 당의 영도하에 조직사

20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p. 447-448.

21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 창립 45돐을 맞는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6월 1일,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02-303.

상적으로 통일단결시켜 수령의 계승 즉, 김정일어로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sup>22</sup>

#### 다. 수령의 영도체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체사상의 사회사원리에서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동력이지만 그들은 올바른 지도에 의해서만 사회사적 운동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지도가 당과 수령의 영도이고 당의 영도는 본질상 수령의 영도로 귀결된다. 이 수령의 영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영도체계’이다.

북한에 따르면 영도체계란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당과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기구들의 총체이며 당, 국가, 단체들로 구성된다.<sup>23</sup> 영도체계 가운데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은 물론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인데, 이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sup>24</sup>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데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밀

22 수령에 대한 충성과 사회정치적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영철,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사회정치적 생명』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참조

23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84.

24 영도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민·한봉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영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77-226 참조

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사상체계”라고 한다.<sup>25</sup>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될 때 “수령의 혁명사상은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 되고 “로동계급의 당은..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위력한 참모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6</sup>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1967년부터 추진되었다. 북한은 1967년 5월 17일 『로동신문』에 게재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자”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촉구한데 이어 한달 뒤에 열린 노동당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의제로 채택,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를 정권의 핵심사업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는 김일성이 직접 “당을 강화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 유일사상체계의 확립문제를 재차 강조했다.<sup>27</sup>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권력 전면에 등장한 김정일이 1974년 4월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라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구호적 차원에서 하나의 행동강령으로 발전했다.

그 내용은 “첫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25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p. 153.

26 리주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의 불패성의 담보,” 『근로자』, 1991년 8월호, p. 41.

2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35.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둘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셋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넷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섯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여덟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아홉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열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sup>28</sup>

북한은 수령이 대중에게 계급의식을 넣어주고 그들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 주며 낡은 것을 뒤집어 엎고 새 것을 창조하는 혁명사상으로 대중을 고무하고 묶어 세우며 혁명투쟁으로 힘차게 불러 일으킨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혁명의 전도에 대한 과학적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당의 전략 전술을 정확히 체득할 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중국적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28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91-124.

을 교양하는 것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의 중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들어주고 나가야 할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요구”라고 강조된다. 소위 ‘유일사상교양인데,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당조 직들은 당 정책교양과 혁명전통 교양을 강화하며 부르조아사상과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29</sup>

## 2. 계속혁명론

계속혁명론은 문화혁명 기간 동안 중국에서 제기되었던 “인민전정(專政)하에서의 부단혁명”이라는 이른바 ‘부단혁명론’을 원용한 것으로서<sup>30</sup> 후계자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계속혁명론이 후계자론의 뿌리가 되는 것은 후계 문제를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 문제로 북한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따르면 계속혁명이란 “인민대중의 지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투쟁을 조금도 지체하거나 중도반단하지 않고 그것을 련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sup>31</sup>

2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김일성 저작집 25』, pp. 347-348.

30 양호민, “모택동사상이 북한과 베트남에 미친 영향,” 김달중·스칼라피노 공편, 『아시아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서울: 법문사, 1989), pp. 92-97.

31 함치영, 『계속혁명에 관한 주체적 리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31.

‘계속혁명론’이 주체사상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정일도 “주체사상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사상”이라고 지적했다.<sup>32</sup>

### 가. 계속혁명의 필연성

북한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도 혁명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치는 경제건설 투쟁과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건설될 수 있다는 데서 찾고 있다.

김일성은 1975년 3월에 행한 연설에서 “로동계급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착취제도를 뒤집어 엮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 엮는다고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저절로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치는 경제건설투쟁과 계급투쟁을 통하여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라고 교시했다.<sup>33</sup> 즉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사람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사회경제적 근원은 없어지지만 낡은 사회의 유물이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남아있게 되므로 이를 없애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유물로는 적대계급의 준동,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 등이 지적된다.

32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433.

33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열성자 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3월 3일,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97.

계속혁명의 필요성은 국내적 이유에서 뿐 아니라 세계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다는 국제적 이유에서도 주장된다.<sup>34</sup> 곧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국내적으로는 착취계급이 없거나 국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계속 남아있게 되고 이들이 있는 한,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국주의와 끝까지 싸우는 혁명적 입장을 견지하고 혁명을 계속하여 나라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은 혁명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남조선혁명과 연관지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도 나라를 절반밖에 해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철천의 원수인 미제국주의가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을 강점하고 있으며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 재침책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에는 지주, 매관자본기들과 친미, 친일 주구들의 반동관료집단이 계속 등지를 틀고 있으며 반동적인 식민지파썸통치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혁명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sup>35</sup>

그렇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진행되는 계속혁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김일성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sup>36</sup>이라고 역설했다.

34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p. 101.

35 김일성,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203-204.



이 세 가지 분야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이어 혁명적 변혁을 일으켜야 하는 주된 영역이라는 것이다.

#### 나. 계속혁명의 원칙

계속혁명론에 따르면 혁명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도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sup>37</sup> 첫째는 혁명 주체의 끊임없는 강화와 그 역할을 제고하는 것인데,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지만 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데서의 선차적인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을 불패의 혁명대오로 계속 강화발전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된다.

둘째는 ‘주체적 립장의 견지’이다. ‘주체적 립장의 견지’란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을 견지”하는 것<sup>38</sup>인데, 자주적 입장은 계속혁명이 민족국을 단위로 진행되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서 남의 간섭을 허용하거나 남의 방식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성과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또한 창조적 입장은 혁명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면 혁명의 폭과 심도가 더 넓고 깊어지며 혁명의 폭과 심도가 더 넓고 깊어지면 질수록 혁명이 더 어렵고 복잡해져 그만큼 사람들의 활동에서도 높은 창조성이

36 김일성,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30돐 기념대회에서 한 보고 1975년 10월 9일, 『김일성저작집 30』, p. 537.

37 함치영, 『계속혁명에 관한 주체적 리해』, pp. 63-96.

38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9.

요구될 뿐 아니라 계속혁명이 나라마다 서로 다른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다.

셋째는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이다. 이는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는 기초우에서 혁명전통에 담겨져 있는 수령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 혁명정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사업방법과 작풍을 이어나가며 모든 분야에 구현해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혁명투쟁에서는 그것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는 원천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대를 이어주는 명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혁명전통이라는 주장이다. 혁명전통 계승의 의미는 다음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는 혁명의 세대들 사이에 계승의 관계가 맺어진 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장기성을 띠고 진행되는 것만큼 세대교체는 불가피하며 이로부터 혁명의 세대와 세대 사이에 계승의 관계가 맺어지고 새 세대들은 혁명의 계승자로 등장한다.

이와 같이 계승성을 띠고 진행되는 투쟁인 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는 그 계승성을 보장하며 계승의 대를 순결하게 이어주는 명맥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혈통에 의하여 대가 이어지듯이 혁명투쟁도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순결하고 일관성있게 이어주는 명맥이 있어야 중도반단되거나 변질됨이 없이 끝까지 완성되어 나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명맥이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인 혁명전통이다.<sup>39</sup>

39 함치영, 「계속혁명에 관한 주체적 이해」, pp. 83-84.

그리고 혁명전통 계승의 중요성은 다음에서 보듯이 후계자의 사명과 후계자에 대한 충성의 강조로 귀결된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특히 수령의 후계자의 유일적 지도에 충실하는 것이다.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은 수령의 후계자에 의해서만 빛나게 수행될 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되며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고수되고 계승발전된다. 이것은 혁명전통의 형성과 그 계승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다.

수령의 후계자는 무엇보다도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함으로써 그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한다.<sup>40</sup>

그러면 계속혁명을 보장하는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령과 후계자의 유일적 령도를 실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의 강화”이다.<sup>41</sup>

요컨대 계속혁명론은 수령의 혁명위업이란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수령의 후계자가 대를 이어 계속하여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

40 함치영, 『계속혁명에 관한 주체적 리해』, p. 88. 북한은 김일성의 ‘현지지도’와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김정일의 ‘실무지도’라고 했다가 점차 김정일의 ‘현지지도’로 바꾸었듯이 처음에는 ‘수령의 유일적 령도와 후계자의 ‘유일적 지도’로 구분했으나 나중에 이 구분은 없어졌다.

41 함치영, 『계속혁명에 관한 주체적 리해』, pp. 96-119.

는 논리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 다. 계속혁명과 후계자

계속혁명론은 혁명의 장기성으로 인해 혁명을 전진시키는 데서 일정한 편향이 나타날 수 있고 혁명이 오랜 기간 계속됨에 따라 사람들 속에서 혁명의욕과 투쟁열의가 낮아질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는 자연히 수령의 대를 이어 혁명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혁명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김일성은 후계자 선출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 동유럽 사회주의국가 및 구소련의 붕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구라파 사회주의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였지만 우리 나라만은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난 시기 당을 강화하였고 김정일동지가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고 대를 이어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령의 후계자를 바로 내세워야 수령이 이룩하여 놓은 혁명업적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고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sup>42</sup>

---

42 김일성, “일군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여야 한다.” 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과 한 담화 1991년 9월 19일,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212-213.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위업입니다.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도가 옳바로 계승되지 못하면 사회주의위업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전 소련의 실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련은 레닌의 정도밑에 제일 먼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나라이고 또한 가장 발전된 사회주의 강국이였으나 정도의 계승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여 사회주의위업을 망쳐 먹었습니다. 소련에서는 수령의 후계자를 옳바로 내세우지 못하다 보니 당이 수정주의당으로 전락되어 혁명전통과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게 되고 당, 국가 활동에서 관료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당이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없게 되었습니다.<sup>43</sup>

결론적으로 계속혁명론과 후계자론이 연결되는 접점은 혁명의 복잡성과 장기성이라는 혁명의 성격이다. “노동계급이 국가주권을 틀어쥔 다음에 실현해야 할 변혁과제만 해도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유례없이 복잡한 과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혁명이 장기화되고 복잡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 속에는 혁명에 대한 권태감을 가지며 인일해이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기<sup>44</sup> 수령이 이미 개척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굳건히 고수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 즉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sup>45</sup>

43 김일성,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항일혁명투사들, 혁명가 유자녀들과 한 담화 1992년 3월 13일, 1993년 1월 20일, 3월 3일,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09-110.

44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 26.

45 김태서는 “혁명의 계속성이라는 역사적 운동을 권력의 승계와 직결시켜 통치

### III. 후계자론

#### 1. 후계자론의 등장

1971년 6월 24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 대회의 개막연설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혁명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갑니다.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어 벌써 해방후 자리난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리나는 새 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 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서 제국주의를 타승할 때까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당신들,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조국이 통일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전국적으로 승리한 다음에도 공산주의를 완전히 건설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또한 세계의 진보적 청년들과 함께 전세계에서의 반제혁명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임

---

자 일개인에 의해 ‘계속혁명’의 보장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태서, 『북한의 후계체제와 김정일』 (서울: 일해연구소, 1987), p. 3.

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야 하며 혁명의 대를 빛나게 이어나가야 하겠습니까.<sup>46</sup>

김일성의 연설은 새로운 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계속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사실 이 연설은 자신의 후계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무렵은 북한이 권력엘리트의 세대교체를 단행할 때였다. 1970년대 초에는 국제정치적으로 적대국가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으므로 북한도 1960년대의 군사대결정책을 마감하고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경제개발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김일성 자신을 포함한 당·국가 간부들의 노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기존 간부들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기관이기주의 폐해도 심각했다.

따라서 1970년 11월에 개최된 당 제5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 117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58명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했고 그 결과 연령에서도 50세 이하가 4차 대회때의 16%에 비해 35%로 높아졌다.<sup>47</sup>

김정일도 1971년 10월 1일 당 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 및 사로청 중앙위원회 책임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사로청 제6차 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세대교체 발언을 상기시키며 “청년들을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도

46 김일성,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6월 24일, 『김일성저작집 26』, p. 203.

47 김 본, “북한의 정치엘리트 층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pp. 96-107.

록 준비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라고 강조했다.<sup>48</sup>

북한은 1972년 후반기부터 ‘당중 교부사업’을 통해 일부 늙은 당원들을 축출하는 동시에 40여만명에 이르는 청년들을 당에 흡수하여 후계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비작업에 나섰다. 또한 이듬해인 1973년 2월에는 5만여명의 청년 및 학생 당원들을 주축으로 한 ‘3대혁명소조’를 조직하고 ‘소조운동’을 김정일이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을 시작했다.<sup>49</sup>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6월 19일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다. 1965년 5월부터는 내각 제1부수상 김일의 참사실에 근무하면서 행정경험을 쌓고 1966년 2월에는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지도원을 겸하게 되어 선전선동 수단의 중추인 예술부문을 관장한다.

중앙당에 배속된 직후 김정일은 당사업에서 명확한 활동방향과 사업기준이 없다고 판단, 이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명확한 활동방향이란 김일성의 사상을 당의 유일한 사상체계로 확립하는 것이었다. 즉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김일성과 그 사상체계를 신성시하고 그의 교시를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는데, 김정일은 이를 위해 당에 김일성의 교시가 즉시 전달·침투되고 그것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질서 확립에 골몰했다.

---

48 김정일, “청년들을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무장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 및 사로청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1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309.

49 박승지, “북한의 후계자론과 권력승계과정,” p. 37.



김정일의 정치적 성장과정에서 1967년 5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 회의는 북한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50</sup> 그는 이 회의에서 박금철, 이효순 등 갑산파에 대한 숙청을 주도하면서 당권 장악과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기틀을 마련했고 1960년대 말에는 당 지도부라 할 수 있는 혁명 1세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과격적으로 부상한다. 1968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영화예술과장이 된 데 이어 1969년 9월에는 선전선동부 부부장, 1970년 10월 선전선동부 문화예술담당 부부장을 거쳐 1973년 7월에는 선전선동부 부장이 된다.

이 직전 그는 1973년 2월부터 착수된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았고 동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로 선출되어 당의 조직사업과 사상 사업을 총괄하는 직위에 올라선다. 이전에도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도 전 분야의 사업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중앙당에 들어간 후 거의 10년만인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어 김일성의 후계자로 추대되었다.<sup>51</sup>

전체적으로 보면 1972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은 김일성의 뒤를 잇는 후계체제 구축작업이 시작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당시 김정일을 ‘당중앙’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을 뿐 이러한 내

50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9), p. 5.

51 탁 진·김강일·박홍제, 『김정일지도자 제2부』 (평양: 평양출판사, 1994), pp. 10-16.

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정일의 위상은 1974년 2월 19일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새로이 규정짓는 소위 ‘2월 선언’을 김정일 명의로 발표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2월 선언’은 그가 유일 통치이데올로기의 해석권까지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sup>52</sup>

‘2월 선언’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 문헌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체계로 정식화하고 김일성 사상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으로서 현시대와 공산주의의 역사적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이라고 찬양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의미했다. 김정일은 1974년 4월 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 관계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10대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를 비롯한 모든 부문 관계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이러한 원칙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

---

52 ‘2월선언’이란 김정일이 발표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말한다. 이 문건은 『김정일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7-66에 실려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사상이론적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수많은 고전적 로작들을 발표”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2월선언’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2001년 6월 18일

하도록 하였으며 1974년말부터 1976년 사이에 이 과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토의사업을 모든 당에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당의 주체사상화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1974년 8월 평양체육관에서 한 달 동안 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국 당조직 일군 강습회’를 진행하면서 당의 주체사상화를 촉구했다.

이후에도 그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당건설에서의 기본원칙으로 견지하도록 하였으며 1979년 4월에는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대책수립을 지시했다.<sup>53</sup> 또한 그는 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해 새로운 당생활총화 제도를 모든 당에 일반화하고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들을 혁신하기 위한 방침들을 제시하여 모든 주민들이 김일성과 당에 충성하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김정일은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북한의 사실상 제2인자이자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공식 등장했다.

제6차 당대회 이후 당의 지도체계가 김정일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김정일은 1981년 5월 김일성을 수행하여 묘향산지구 개발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건설현장을 공식 시찰하고 관련된 각종 지시를 하달하였다. 북한은 이를 ‘실무지도’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처럼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등장하기까지 후계자론이라는 이론적 정립은 없었다. 대신 후계자로 추대된 김정일을 베일속에 가려둔

53 김정일,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4월 28일, 『김정일선집 6』, pp. 287-302.

채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고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 후계자가 된 뒤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는 한편, ‘80년대 속도창조 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전당의 주체사상화’, ‘준법 기풍 양양’,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 등을 주도하였다.

이 시점을 전후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은 대외업무와 대내업무를 나누어 분담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sup>54</sup> 따라서 이 무렵 후계자론의 이론적 체계화가 더욱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내용상으로 볼 때 후계자론은 1985년 10월 노동당 창당 4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주체사상총서』가 발간되어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영도체계론의 정립이 이루어지면서 한층 더 다듬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일성은 1986년 5월 31일 김일성 고급당학교 창립 40주년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에서 후계자 문제를 “정치적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하여 후계 문제의 마무리 선언과 함께 후계자의 영도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는 체계의 구축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당의 위업을 계승해 나가는데서 기본은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54 황장엽은 1974년부터 1985년까지는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 1985년부터 94년까지는 ‘김정일-김일성’ 공동정권이었고, 특히 1985년부터는 이미 김정일이 실권을 잡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3년 10월 23일.

로동계급의 당 건설에서 후계자 문제는 정치적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입니다. 수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은 그 후계자에 의하여 변함 없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로동계급의 당의 위업을 누가 어떻게 계승하는가 하는 것은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민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혁명의 전진도상에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여도 동요와 우여곡절이 없이 당의 위업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당의 위업을 옹계 계승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후계자를 바로 내세우는 것과 함께 그의 영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고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sup>55</sup>

위에서 보듯이 로동계급의 혁명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령의 대를 이어 로동계급의 혁명을 계승·완성해 나갈 후계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후계자란 “수령의 뒤를 잇는 영도자”, 즉 수령의 “위업을 계승하고 그의 뒤를 이어나가는 영도자”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의 후계자 문제는 수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를 의미하며 후계자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여 수령의 뒤를 이어나갈 영도자로서 미래의 수령을 뜻한다.<sup>56</sup> 곧 후계자는 국가주

55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를 1986년 5월 31일, 『김일성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100.

석이나 당 총비서와 같은 직위를 승계하여 단순히 정권을 이끌어 나가는 권력의 후계자가 아니라 혁명사업을 영도해 나갈 수령의 지위를 승계한 후계자라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수령의 후계자문제는 권리와 지위를 넘겨 주고 이어받는 관계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 온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sup>57</sup>

## 2. 후계자론의 내용

후계자론은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 후계자의 요건,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일성체현론, 세대교체론, 준비론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 가.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

후계자론에서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대를 이어 그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 데서 최고의 책임을 지며 최대의 지휘권을 가지는 영도자이다. 후계자론의 이론적 모체가 되는 수령론에서의 수령과 같이 후계자란 존재도 당이나 국가기관의 특정한 직책이나 직위로서가 아니라 혁명수행에서의 지위와 역할로 규정된다. 후계자가 대를 잇는다고 할 때 그것은 본질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수령론에 따르면 노동계급의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

56 김유민, 『후계자론』, p. 48.

57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 29.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후계자도 바로 수령의 이런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은 그 누구도 대신하거나 나누어 가질 수 없고 침해할 수도 없는 배타성과 신성불가침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후계자론에 그대로 투영되어 후계자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도 배타성과 신성불가침성을 지닌다. 다만 수령이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계획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 후계자는 수령의 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데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sup>58</sup>

구체적으로 보면 후계자의 지위는 수령에 의해 결정되어 상당기간 동안 수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시기와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 나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수령의 지위를 차지하는 시기로 구별된다고 한다.<sup>5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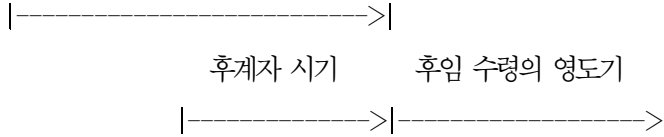
후계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수령을 받들고 수령을 보좌하여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충실히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시기가 있고 수령의 위업을 계속해서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시기가 있다.

이와 같이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에서 일정한 차이가 생기는 두 시기가 있게 되는 것은 수령의 영도가 실현되고 있는 때에 후계자의 추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유로 제시된다.

58 김유민, 『후계자론』, p. 61;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 30.

59 김유민, 『후계자론』, pp. 61-62;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 30.

전임 수령의 영도기



후계자에게 부여되는 역할을 요약하면 첫째, 수령의 혁명사상을 고수·관철하고 발전·풍부화시키며, 둘째,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는 한편 시대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청에 부응하여 무단히 발전·풍부화시키며, 셋째, 변혁의 주체, 즉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무단히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sup>60</sup>

첫째와 관련하여 노동계급의 변혁운동은 바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수령의 사상이 완전히 실현될 때 완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것이 후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주장이다.

둘째와 관련해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해 이룩된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 사업방법과 민중적 사업작풍을 내용으로 하는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전진될 수 있기 때문에 후계자는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혁명전통을 왜곡·말살하려는 온갖 책동으로부터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은 물론 혁명전통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수령의 위업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일성은 “혁명위업을 계승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전통을 옹고 계승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혁명전통을

60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p. 31-34.



계승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sup>61</sup>

세 번째 역할과 관련해서 후계자는 수령에 의해 마련된 변혁의 주체를 부단히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후계자는 노동계급과 근로민중에게 수령의 위대성 교양, 혁명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고, 특히 변혁의 주체에서 중추를 이루는 당을 강화·발전시켜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북한은 후계자의 이런 지위와 역할 때문에 후계자 문제가 반드시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수령의 후계자로서의 필수적인 품격과 자질을 손색없이 갖춘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고<sup>62</sup> 또 하나는 후계자의 영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고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sup>63</sup> 수령의 위업을 누

61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p. 102.

62 따라서 “후계자는 어디까지나 인물을 본위로 하여 선출해야 한다. 인물이 선출의 절대적이며 본질적인 표징이고 기타는 모두 상대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관계없이 특출한 인물이면 후계자로 선출될 수 있다. 수령과의 혈연관계는 상관없다”고 주장된다.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 43. 같은 맥락에서 “어떤 인물이 후계자로서의 모든 자질과 품모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물이 수령과 혈연관계에 있다고 해서 후계자로 선출되지 못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김유민, 『후계자론』, pp. 77-78.

63 2000년에 출판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에서는 후계자 문제가 세 가지 과제, 즉 “비범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민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추대,” “후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강화,”

가 계승하고 그가 어떤 조건에서 혁명위업을 계속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나. 후계자의 요건

수령의 대를 이어 혁명을 수행할 후계자의 요건이란 어떤 사람이 수령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수령 후계자의 품격과 자질에 관한 것이다. 후계자론은 후계자를 인물 본위로 선출하는 것이 대원칙이며 후계자가 지녀야 할 특성으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품격과 자질에서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고 한다. 즉 후계자는 수령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사상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에 대한 후계자의 충실성이란 무엇보다도 수령이 내놓은 사상과 수령이 이룩한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말한다고 하며 수령이 내놓은 노선과 정책의 관철을 필생의 과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속혁명론’에서 살펴 보았듯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치열한 계급투쟁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기회주의자들과 변절자,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이 끊임없이 전개되므로 후계자가 수령의 혁명사상에 충실하지 못하면 혁명이 중도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충실성을

---

“후계자의 유일적 령도체계의 확립”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번째의 과제는 내용상 세 번째 과제와 동일하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50-71.

최우선으로 하는 이유이다.

둘째로 지적되는 특성은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뛰어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 덕성이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해 나가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을 고수하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후계자는 반드시 수령의 혁명사상에 정통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비범한 예지를 지닌 뛰어난 지도자라야 민중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포착하여 탁월한 사상이론과 확고한 신념으로 대중을 지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뛰어난 예지는 후계자의 역사적 중임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자질이라고 한다.

탁월한 영도력이 필수적인 이유는 앞서 수령론에서 본 바와 같이 역사를 창조하는 민중의 거대한 힘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옹계 이끌어주기 위한 데 있다고 한다.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영도력을 지녀야 “력사창조의 준엄한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고 복잡한 상황속에서 능숙하게 민중을 결집시켜 수령의 혁명위업으로 그들의 무궁한 창조력을 조직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김정일이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혁명의 령도자에게 지워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발전시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옳바른 지도사상을 등대로 해서만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탐구력과 정력을 가지고 사상리론활동을 벌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여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새로운 자주시대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주체사상을 내놓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왔으나 주체사상의 원리를 종합체계화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자의 령도력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 능력과 수완에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인민대중이 자기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려면 반드시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하며 사상적으로 발동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사상적으로 발동하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으며 혁명적 당의 그러한 기능과 활동은 비범한 능력과 수완을 지닌 지도자의 령도에 의하여 보장되게 됩니다.<sup>64</sup>

한편 고매한 덕성의 보유는 지도자와 민중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 요구로서, 이는 민중의 신임과 지지도,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위신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된다. 곧 후계자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서 민중의 운명을 역사앞에 책임지는 정치지도자이므로 민중에 대한 깊은 사랑과 무한한 헌신으로 특징지어지는 덕성을 지녀야만 민중이 그에게 자기 운명을 의탁하고 감화되어 형극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헤쳐 나

64 김일성,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pp. 111-113.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복과 영광으로 여기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의 종착점은 수령의 후계자는 민중 속에서 공인된 지도자로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업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업적이란 지도자의 자질이 실천을 통해서 외면화,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탁월한 자질을 갖춘 수령의 후계자는 “자기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민족의 번영과 민중의 행복을 담보하는 사상정신적, 물질문화적 재부로 될 훌륭한 업적을 쌓아 올리고 그것으로 하여 민중속에서 공인된 지도자로 추대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셋째로 지적되는 특성이 후계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과 공헌으로 인해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질의 요구는 이른바 ‘김일성체현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김일성체현론’이란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모든 것을 체현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김일성에게 충실한 자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후계자가 지녀야 할 제일의 덕목으로 지도자로서의 일반적인 자질보다 수령의 혁명 사상과 이론을 체득하는 것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제시하고 있다. 곧 수령인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혁명위업과 영도방법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령의 후계자 역시 개인적 자질에 앞서 김일성의 모든 것을 체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65</sup>

이와 관련해 김정일은 “수령의 직접적 계승자, 후계자는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고 그것을 옹호관찰하기 위하여 한 목숨 바쳐 투쟁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탁월한 령도력과 천재적 예지를 가진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이런 사람만이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혁명

65 곽승지, “북한의 후계자론과 권력승계 과정,” pp. 53-54.

을 계속할 수 있으며 수령이 구상하고 령도하는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켜 더욱 빛내여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sup>66</sup>

‘김일성체현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른바 ‘혈통계승론’이다. ‘혈통계승론’은 김일성이 당건설과 혁명을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노정에서 창시하고 발전시킨 모든 ‘혁명적 재부’인 ‘혈통’을 후계자가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생물학적인 혈통이 아니라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 혁명업적, 투쟁경험, 사업방법 등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이다.<sup>67</sup>

네 번째의 요건은 수령과 후계자의 세대적 관계가 동일 세대가 아닌 서로 다른 세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세대교체론’으로서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완성시켜야 하는 영도자이므로 수령과 함께 혁명활동을 해 온 세대가 아니라 수령의 다음 세대에 속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후계자의 연령적 조건에 관한 것이다.

이 조건의 요구는 변혁운동이 오래 계속되는 가운데 수령의 대가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때문이다. 수령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인물을 후계자로 내세우게 되면 그의 영도기간이 오래 계속될 수 없어 또 다시 후계자를 추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와 같이 수령이 자주 교체되는 것은 변혁운동의 뇌수이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 빈번히 바뀌는 것을 뜻하고 수령이 자주

66 함치영, 『계속혁명에 관한 주체적 리해』, p. 105에서 재인용.

67 “북한은 ‘혈통’이라는 용어를 통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동양의 가부장적 정서를 은연중에 내세움으로써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혈통계승론’은 후계자론중에서 “가장 직설적이며 북한 특유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광승지, “북한의 후계자론과 권력승계 과정,” p. 50.

비꾸면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sup>68</sup> 이것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관계를 염두에 둔 논리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세대교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준비론’이다. ‘준비론’은 후계자를 선출하는 시기에 관한 것으로 수령이 살아있고 활동하는 때에 후계자를 추대하여 수령이 육성함으로써 후계자가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이다.

북한은 후계자를 키우는 것이 “수령이 자기 당대에 수행해야 할 가장 중대한 위업중의 하나”라고 한다. 후계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령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그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그를 따라 배우며 그의 령도를 직접 보좌하는 실천활동”이 “후계자가 준비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칙적인 관행”이라는 것이다.<sup>69</sup>

후계자가 수령 생존시에 선정되어 일정한 준비기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지적된다. 첫째, 수령의 영도밑에 후계자의 영도 체계를 확고히 세울 수 있고, 둘째, 수령이 뜻하지 않게 퇴임한 다음 후계자를 추대하면 수령의 영도가 일시적으로나마 중단되거나 후계체제가 공고화되지 못한 틈을 타 권력쟁탈을 노리는 야심가들이 준동할 수 있으며, 셋째, 후계자가 수령을 직접 보좌함으로써 수령의 노고와 심려를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후계자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 김정일이라고 선전했다. 김정일은 수령 김일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수령의 사상과 사업방

68 김유민, 「후계자론」, pp. 82-84;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p. 48-49.

69 「내외통신」, 종합판 16호, pp. 25-26; 곽승지, “북한의 후계자론과 권력승계 과정,” p. 53에서 재인용.

법을 체득했을 뿐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을 담당할 비범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sup>70</sup>

김정일 자신도 수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진력했다.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을 인정받은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 중앙위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추대되었고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화된 뒤에는 ‘또 하나의

70 북한에서 발행된 김정일 찬양 저작물들은 그의 능력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비범함을 내세우고 있다. 위대한 사상이론가와 정치가로서의 능력이다. 2001년에 출판된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권 <위대한 사상리론가>와 2권 <위대한 정치가>는 그 대표적 예이다. 1권에서는 주로 김정일을 천재적인 사상이론적 예지를 가졌고 위대한 사상이론 활동을 폈다고 찬양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지에 대해 비범한 탐구력과 사색력, 비상한 통찰력과 분석판단력, 특출한 기억력과 해박한 식견 그리고 출중한 저술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의 위대한 활동의 예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원리들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전일적으로 체계화했고 그 독창성과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한 사상이론활동을 정력적으로 펼친 공로가 있다는 해석이다. 2권은 정치가로서의 김정일에 대해 정치철학과 이념, 비범한 영도력과 영도풍모 그리고 탁월한 정치활동으로 세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요약하면 출중한 영도력은 천리혜안의 과학적 예견성, 비상한 조직동원력, 완강한 실천력, 특출한 창조력에서 나오며, 강철의 정치신념과 의지, 무비의 정치담력과 지략, 숭고한 인민성, 강의한 혁명적 원칙성에 의해 비범한 영도풍모가 나온다고 찬양하고 있다. 사회과학원·김일성종합대학 편,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제1권 위대한 사상리론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pp. 9-144, 181-183; 사회과학원·김일성종합대학 편,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제2권 위대한 정치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pp. 45-227. 박태상, “북한문학상의 김정일 묘사 특징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2호 (2002), pp. 276-278에서 재인용.



수령으로 불렸다.

#### 다.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령론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영도체계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라면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계승·완성하기 위한 영도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후계자의 영도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사상체계, 조직체계, 사업질서와 규율 등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며 “후계자가 당, 국가기관 및 대중단체 그리고 수백수천만 대중을 지도하는 조직정치적 공간”이다.<sup>71</sup>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대를 이어 계승하는 것은 현실에서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이어가며 진행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그런데 장기적인 과제를 달성함에 있어 후계자를 옳게 내세웠다고 해도 그의 영도실현의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그의 영도실현의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주지 않으면 수령의 영도가 끝났을 때 후계자의 영도실현에 예기치 않았던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으며 수령의 위업계승에서 심각한 장애를 자초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일성은 “당의 위업을 옳게 계승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후계자를 바로 내세우는 것과 함께 그의 영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

---

71 김유민, 『후계자론』, p. 86.

를 튼튼히 쌓고 령도체계를 철저히 내세워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sup>72</sup>

후계자의 영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후계자를 단결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서 수령과 그의 위업을 이어나갈 후계자에게 충실한 일군들로 당의 수뇌부를 구성하고 전당을 수령과 후계자 중심으로 굳게 결집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 주장한다.

또한 후계자의 영도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후계자의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며 수령과 후계자의 의도대로 혁명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당안에 후계자의 의도와 방침을 무조건 접수·관철하는 기풍을 세우고 전당이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sup>73</sup>

따라서 북한은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구현하고 수령의 의도에 따라 혁명을 전진시키며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령도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sup>74</sup>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는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에 충실한 사람들을 간부로 등용하여 이들이 후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는 근위대,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sup>75</sup>

72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 p. 100.

73 함치영, 「계속혁명에 관한 주체적 리해」, p. 112;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 37.

74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p. 67.

75 최용현,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강화하는 것은

둘째,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의 모든 문제를 후계자에게 집중시키고 후계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사업을 처리해 나가는 당사업에 대한 이른바 ‘후계자의 유일관리제’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76</sup> ‘후계자의 유일관리제’는 전당이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철저히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라는 것이다.

셋째로는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강한 조직규율이 확립되어야 후계자의 의도와 배치되는 온갖 비조직적이고 무규율적인 현상을 없애고 불건전한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령의 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후계자의 의도를 중앙으로부터 하부 말단에까지 침투시켜 당안에 수령의 사상만이 지배하고 전당이 수령의 사상대로 움직이게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한다.<sup>77</sup>

넷째는 후계자의 의도와 방침을 절대성의 정신에서 접수하고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후계자의 지시를 가장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불평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 『근로자』, 1991년 10월호, pp. 48-52.

76 ‘후계자의 유일관리제’란 “당사업과 당정책 관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수령의 후계자에게 집중시키고 후계자의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처리해 나가는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라고 한다.

77 리오송,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근로자』, 1976년 2월호, p. 49.

마지막으로는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는 온갖 현상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그와 어긋나는 온갖 현상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법론에서 보듯이 북한은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당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후계자론은 후계자는 처음에 당의 영도자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즉 후계자는 “미래의 수령으로서 바로 당의 령도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야 후계자가 당을 골격으로 자기의 령도체계를 세워나갈 수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당의 중추적 역할을 높여 민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변혁운동을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후계자는 당의 령도자로 선출되었을 때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공고한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항도체인 당과 그 인전대를 통해서 전체 민중을 통일적으로 령도하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전반 사업을 장악 지도하여 수령이 처음으로 개척한 혁명위업을 확고부동하게 계승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정치적 수령으로 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sup>78</sup>

이러한 주장은 혁명운동에서 당과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련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에서 혁명운동은 수령에 의해 영도되고 수령의 영도는 당을 통해서 실현된다. 역으로 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여 수령이 개척했다는 변혁위업의 완성을 근본사명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

78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철』, p. 50.

정치적 생명체이고 여기서 당은 그 중추를 이룬다고 주장되는 것이다.

한편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그 목적과 본질 내용에 있어서 같은 것이라고 한다. 수령의 영도체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목적이 수령의 영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있다면 후계자의 영도체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목적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고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김정일을 후계자로 등장시키기 직전 「근로자」에 발표된 한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수령님의 의도를 받들어 주체위업을 완성할 수 있게 하는 혁명적 지도이다. 그러므로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충실하는 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sup>79</sup>

김일성도 김정일에 대한 빨치산 동료들의 충성을 부탁하면서 수령에 대한 충성과 후계자에 대한 충성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나가는데서 항일혁명투사들이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항일혁명투사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충실하여 온 것처럼 김정

79 강석승,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본분,” 「근로자」, 1979년 4월호, p. 58.

일동지를 잘 받들고 도와주어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만큼 평도자에 대한 충실성도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합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그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참다운 충실성으로 되며 그러한 충실성을 지닌 사람이 바로 참다운 혁명가이고 충신입니다.<sup>80</sup>

따라서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떤 가식과 변심도 없이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는 것처럼 대를 이어 수령의 후계자를 높이 우러러 모셔 나가는 티없이 맑고 깨끗하며 변하지 않는 충실성”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당에게 요구되는 것은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하는 문제를 계속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중요하게 내세우고 충실성 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충실성 교양으로 일관”되게 하는 것이다.<sup>81</sup>

---

80 김일성,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pp. 123-124.

81 함치영, 『계속혁명에 관한 주체적 이해』, pp. 110-111.

#### IV.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지 3년 3개월만인 1997년 10월 당총비서에 취임했다. 그 동안 북한에는 공식적으로는 국가수반과 당총비서가 없었고 김정일은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통치해 왔다. 이는 비정상적 체제였음을 의미하며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은 지속되어 오던 비정상적 체제의 종료와 함께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김일성 시대가 마감되고 명실상부한 김정일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뜻했다.

김정일체제는 이듬해인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주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사실상의 국가수반으로 격상시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함으로써 권력승계를 마무리했다.

또한 김영주 등 부주석들을 모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물러나게 하고 과거 정무원의 부부장급들을 새로 개편한 내각의 부처 책임자로 승진시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1970년대 이후 국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인맥을 구축해 온 김정일로서는 파격적인 물갈이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내각의 경우 총리와 부총리를 비롯해 34명의 각료급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23명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는데, 이 가운데 부상(副相)급에서 상(相)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10명이고 나머지는 국장급 혹은 지방의 연합기업소 지배인이나 당책임자로 있다가 발탁되었다.

그러나 9월 9일 정권수립 50주년 기념열병식때 발표한 주석단 명단 20위에 드는 인물들 가운데 김정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70, 80대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74.2세였다. 원로급 인사인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 4

명을 제외하면 72.5세였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22명의 평균연령 63.4세에 비해 10.8세가 많은 것이었다.<sup>82</sup> 주석단의 평균 연령이 이처럼 높은 것은 김정일체제의 최대 과제가 체제 변화가 아닌 체제유지인 만큼 신진세력 보다는 김일성 시대부터 자신과 가깝게 지냈던 구세대 인물들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던 북한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다.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직후 “나에게서 0.0001mm의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고 공언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해 온 그로서는 새로운 노선의 채택이 자신의 과거 업적 부정을 의미하므로 과거와 결별한 본질적 변화를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직면해 있는 국가적 난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 변화를 담당·추진해 나갈 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1998년 7월 26일 실시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들의 계층별 분포를 보면 교수, 박사 등 학위학적 소유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72.2%였다. <로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행한 대의원자격심사위원장 김국태의 보고내용을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대의원의 학력분포는 대학졸업 85%, 전문학교 및 고등중학교, 기술학교 졸업이 15%였다.

---

82 「연합뉴스」, 1998년 9월 11일



<표 1> 기수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학력분포

(단위: %)

	대학졸업	전문학교졸업	중학교졸업	인민학교졸업
7기	50.4	12.8	36.8	-
8기	56.7	19.1	24.2	-
9기	68.2	31.8	-	-
10기	85.0	15.0	-	-

\*출처: 『연합뉴스』, 1998년 9월 15일

북한은 당초 제7차 당대회를 2000년 가을쯤 개최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김정일은 2000년 8월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당대회 개최시기를 물어 “가을쯤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면서 “그런데 준비했던 당대회가 남북정세가 급히 바뀌어 모든 것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sup>83</sup> 당대회의 준비는 새로운 출발의 다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은 이 무렵 각오를 새롭게 다진 듯 하다.

북한은 2003년 8월 3일 김정일의 집권 2기를 이끌어 갈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대의원 선거를 5년만에 치루어 총 687명을 선출했는데, 687명은 제9기, 제10기와 동일한 숫자이나 제11기에는 반수에 해당하는 343명이 교체되고 군부 인물의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대남사업 관련 인물이 다수 등장하는 등 10기 대의원 선거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선거 결과 최고인민회의의는 55세 이하가 52.3%이고 초급대학 이상 졸업자가 약 98%인 대의원, 그래서 북한 역사상 가장 젊고 가장 많이 교육 받은 대의원들로 구성되었다.

지난 1998년 7월 실시한 제10기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의 64%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50%에 이르는 대의원을 새로 선출한 것은

83 『연합뉴스』, 2003년 10월 8일

“정권수립 55주년을 맞이하여 점진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sup>84</sup>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의 11기 1차회의에서 내각을 개편하여 총리를 포함한 70대 각료들을 젊은 기술관료들로 교체했다. 31명의 내각 구성원중 8명을 새 인물로 교체했는데, 각료중 일부는 40-50대가 포함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단행된 세대교체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 셈이다. 70대인 홍성남 총리,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물러나고, 대신 64세의 박봉주 전 화학공업상이 신임 총리로 발탁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또한 빨치산 세대를 대표하는 80대의 이을설 원수, 백학림 차수 등이 퇴임하고 50대 후반인 최용수 인민보안상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북한은 조만간 혁명을 계속 이어서 지도할 새로운 지도자의 필요성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김정일 이후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여러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있는 관측들은 대체로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도 있어 일별해 볼 필요는 있다.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부자세습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이 가운데 부자세습을 선택하는 경우는 전임 집권자에 대한 후계자의 충성을 확신할 수 있는 때문이고 부자세습이 아닌 경우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적임자를 선택하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

84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65호(2003. 8. 1-8. 7), p. 6.

## 1. 부자세습 경우

김정일은 사회주의국기들의 몰락을 전임 집권자들에 대한 후임자의 배신 탓으로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후계자의 배신을 경계하고 있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력사는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그들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며 혁명선배들을 저버리고 그들의 업적을 부정할 때에는 혁명이 중도반단되고 좌절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 혁명선배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혁명선렬들이 추켜 든 혁명의 붉은기를 대를 이어 높이 들고 나아갈 때에만 인민대중의 지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이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의 리입니다. … 혁명선배들의 투쟁과 업적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하며 부정하는 것은 혁명의 길에서 물리서며 혁명을 배반하는 것으로 됩니다.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그들의 사상과 업적을 모독하는 것은 혁명을 모독하는 것이며 혁명의 원수들 앞에 이부굴종하는 것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선렬들이 개척하고 전진시켜 온 사회주의 위업을 변함없이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혁명선배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사상과 업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 력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은 사회주의 위업을 반대하면서 공격의 예봉을 로동계급의 수령들과 전 세대 혁명가들에게 돌리었습니다. … 현대수정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수령과 혁명선배들을 모독하고 그들의 업

적을 말살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변질과 붕괴에로 이끌어 갔습니다. 사회주의의 변질과 붕괴과정은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여 수령과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외곡변질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기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로동계급의 수령을 헐뜯고 혁명선배들의 성스러운 혁명투쟁과 위대한 혁명업적을 모독하였으며 사회주의를 허물고 자본주의를 복귀시켰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압력에 굴복하여 혁명을 배반한 가장 비렬한 반혁명적 죄행이며 혁명적 의리를 저버리고 초보적인 인간도덕마저 짓밟은 가장 비도덕적인 배신행위입니다. 혁명의 배신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모독함으로써 사람들속에서 사상적 동요와 혼란을 조성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위업을 더욱 악랄하게 비방할 수 있는 구실을 주었습니다.<sup>85</sup>

후계자의 배신에 대한 김정일의 이러한 우려와 경계심에 비추어 부자 세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김정일은 법적으로는 1974년 김영숙과 결혼하여 설송이라는 딸을 하나 낳았다. 또 성혜림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가 김정남이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장남이고 성혜림은 2002년 러시아에서 사망했다. 현재 김정일과 동거하고 있는 부인은 고영희이고 고영희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정철과 정운이다. 김정일은 김형직 사병대 총장을 지냈던 홍일천과도 살았고, 그 사이에 혜경이라는 딸이 있다는 설이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85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년 12월 25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110-116.

북한은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혁명의 혈통’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자는 김정일의 자식 중에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추대된 이후 김정일이 적자의 의미인 ‘본가지를 강조하면서 ‘결가지’를 제거한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남녀평등을 중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식 가운데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설송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유교의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북한에서 딸이 권력을 승계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림 1>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계도



## 가. 김정남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선 장남인 김정남이 꼽힌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북한이 1997년부터 김정남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sup>86</sup> 김정일의 경호를 맡고 있는 호위부에서 근무한 경호원 출신의 한 탈북자도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라면서 김정일이 1990년대말에 이미 김정남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정일이 자신의 특각에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한 사람은 여동생으로서 당 중앙위원회 경공업부장인 김경희와 김정남뿐”이며 “김경희는 늘 김정남을 데리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김정일이 김정남을 ‘본줄기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김정남이 김정일의 본처가 아닌 성혜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결가지’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분석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sup>87</sup>

현재 김정남은 조선컴퓨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보기술 부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들어가 현재 부부장직을 맡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한 김정일이 1990년대 중반부터 자신의 김일성종합대학 동기생들로 하여금 김정남이 정보와 조직부문에서 후계자로서 기반을 다질 수 있게끔 곁에서 돕도록 해 왔다고 하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김정남의 승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은데, 부정적인 시각은 그가 2001년 5월 위조여권을 소지한 채 일본에 입국하려다가 강제추방된 이후 크게 부각되었다. 김정남은 일본서 추방된 후 아버지의

86 『뉴스위크』, 2001년 5월 14일

87 이영국의 증언 『조선일보』, 2002년 2월 25일

노여움을 사 귀국하지 못하고 베이징과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등 제3국을 왕래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많았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속성상 잘못이 있으면 불려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못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권력승계에서 김정남이 유리한 점은 그가 장남일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외국 유학을 해 서방세계 사정에 밝아 차세대 지도자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복동생들이 아직 어려 사회적 경험이 적다는 것도 앞으로의 경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김정남이 이미 북한에서는 ‘소(小)장군’으로 불리고 있으며 김정남의 자유분방함은 권력승계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sup>88</sup>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그의 일본 밀입국 실패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이긴 하지만 김정일이 2001년 1월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를 데리고 다녔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김정남이 중국 방문에 동행했다는 것은 김정남과 관련된 것을 숨겨만 왔던 것에 비추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시사 월간지 『광각경(廣角鏡)』은 김정남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잡지는 ‘김정일과 그의 맏아들 김정남’이라는 제목의 논평 기사에서 “김 위원장은 부친으로부터 승계한 권좌를 장남인 김정남에게 승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북한에서 김정일과 김정남을 각각 ‘장군’과 ‘작은 장군’으로 호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김정남은 모스크바와 스위스에서 유학했고 컴퓨터에 정통하며 일어 학습을 위해 일본에도 다녀오

88 『産經新聞』, 2002년 2월 13일



는 등 서방 세계를 왕래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요직을 맡고 있다고 한다.<sup>8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남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최근 후계문제와 관련해 김정남의 이복동생 김정철이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과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김정남이 장기간에 걸쳐 외국에 체류하며 낭인 아닌 낭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후계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sup>90</sup>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권부에서 김정남보다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 태어난 김정철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sup>91</sup>

#### 나. 김정철

「뉴스위크」도 김정일의 차남인 김정철이 권력을 승계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인 경우 심각한 권력투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sup>92</sup> 이 잡지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북한에서 장남인 김정남이 그

89 「광각경」, 2001년 4월 15일-5월 15일

90 「연합뉴스」, 2002년 12월 17일

91 「讀賣新聞」, 2002년 2월 13일. 반면 최근 도쿄(東京)신문은 김정남이 현재 체재중인 오스트리아에서 연내에 귀국, 국가안전보위부 간부로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김정남은 현재 북한의 무역관계 기관이 있는 오스트리아에 머물며 인민군 정보기술(IT) 사업화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동안 외국에 머물던 그가 귀국하게 되는 것은 후계자로 재부상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11월 28일

92 「뉴스위크」, 2003년 3월 10일

동안 후계자로 지목되어 왔으나 2001년 그가 일본에 밀입국하려다 체포되어 추방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형제 사이에 권력승계 다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군부의 강경세력들이 김정남에 대해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 서방세계에 물들었다고 비판하면서 김정철을 지지하는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최근 입수된 북한 인민군 내부 문건이 김정철의 생모 고영희를 이상화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장남 김정남을 제치고 김정철이 후계자로 낙점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월간 조선』 2003년 3월호도 북한이 2002년 8월부터 군 장병들을 상대로 김정일의 부인을 이상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이 사상학습 자료의 전문을 입수해 게재했다.

조선인민군 출판사가 2002년 8월에 발간했고 “존경하는 어머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충신 중의 충신이다”는 제목을 가진 이 학습자료는 모두 16쪽 분량이다. “대내에 한함”이라고 표시된 이 자료는 “존경하는 어머니”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고영희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고사령관 동지의 신변 안전을 위해 모든 심혈을 바치고” “최고사령관 동지를 가장 몸 가까이에서 보좌”한다는 표현으로 볼 때 동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 인물이 1974년 김정일과 정식 결혼한 김영숙이라면 굳이 이름을 숨길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문건에는 ‘어머니’가 인민군의 사격 모습을 보면서 “권총 사격법이 마음에 안든다,” “움직이는 표적을 쏘아야 한다”고 현지지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과거 김정일의 권력 장악 이전에 벌어졌던 ‘김정숙 이상화’ 과정과 흡사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숙이 총을 잘 쏜다고 선전하다가 나중에는 위대한 전략가로 치켜 세웠다. 이 문건을 본 황장엽도 “김

정철을 후계자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sup>93</sup>

고영희의 우상화는 1998년 12월 개성시 판문군 소재 인민군 민경부대에서 시작된 ‘사모님 따라 배우기’ 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 종래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을 따라 배우는 운동이 사라졌으며, 김정숙이 있던 자리는 모두 사모님의 차지가 되었다고 한다. 최고사령관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그의 신변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바치고 있는 ‘사모님’의 헌신적 희생정신과 인간애를 인민군 장병들이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운동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다. ‘사모님’의 ‘모범적인 행위’가 일화 형식으로 정리되어 <덕성실기>라는 책자로 묶여져 나왔으며, 유사한 내용의 내부 문건들이 수시로 내려와 사상교양을 위한 강연자료와 학습교재로 쓰였다고 한다. 그러나 장병들 사이에 ‘사모님’이 김정일의 부인이라는 것만 소문으로 떠돌 뿐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곳 민경부대에서 근무하다 온 탈북자의 증언이다.

고영희는 재일교포 출신으로 1953년에 태어나 재일교포 복송사업이 시작된 1960년대에 부모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갔고, 1971년쯤 만수대에 술단에 들어가 무용수로 활동했다고 한다. 고영희는 김정일과 정식 결혼하지 않고 살면서 1981년 아들 김정철을 낳았다.

김정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그가 스위스의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후 현재 노동당 선전부의 핵심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일본의 시사주간지 『아에라』는 후계자 물망에서 김정철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황태자로 알려진 것은 장남 김

93 『월간 조선』, 2003년 3월호 pp. 113-116.

정남이었으나 일본 밀입국 적발 사건으로 김정일의 노여움을 샀을 뿐 아니라, ‘성분’이 나쁘다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sup>94</sup> 북한 정권의 성격상 “나라를 버린 성씨 일가와 연관있는 김정남을 후계자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후계문제에서 권력투쟁이 이미 진행되어 김정철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일부의 분석도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군부 강경세력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김정남이 북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정철을 밀고 있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대체로 일본 언론들도 고영희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김정철을 후계자로 밀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sup>95</sup>

#### 다. 김정운

1988년부터 2001년까지 13년간 김정일을 수행하며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는 최근 『김정일의 요리인』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김정일의 세 아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그는 김정일 이후의 권력승계와 관련, “2001년에 장남인 김정남이 일본 밀입국에 실패한 이후 김정일 위원장과 고영희 사이의 아들인 김정철이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김정철보다는 3남인 김정운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김정철에 대해 “여자같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김정운을 가장 마음

94 『AERA』, 2002년 4월 22일. 김정남의 ‘성분’ 문제는 어머니 성혜림의 언니인 성혜량이 1996년 유럽에서 망명한 때문이다.

95 『교도(共同)통신』, 2003년 6월 16일.

에 들어했다는 것이다.<sup>96</sup>

이러한 주장은 이보다 1년 앞선 『조선일보』 보도로 뒷받침된다. 즉 『조선일보』는 “최근 들어 북한과 중국 쪽에서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운이 후계자로 점차 유력”해지고 있는데, 이는 “첩보 수준으로 떠돌아 다니는 것이 아니며, 아주 믿을 만한 소스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측 고위 정보당국자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북한 내에서 김정철은 컴퓨터를 좋아하고 예술적 재능이 김 위원장을 닮았으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에 비해 김정운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보당국도 김정운에 무게를 두고, 그에 대한 정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sup>97</sup>

이와 관련하여 고영희가 당과 군의 고위 간부를 내세워 김정운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고영희가 자신의 둘째 아들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당과 군 고위간부들로 하여금 그를 ‘셋별대장’으로 부르도록 했다”는 것이다.<sup>98</sup>

그러나 고영희가 암계통의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그 병이 악화되어 중태에 빠져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일 경우 그의 병환은 자식들의 후계자 지명 여부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96 『조선일보 인터넷』, 2003년 6월 20일

97 『조선일보 인터넷』, 2002년 6월 22일

98 『연합뉴스』, 2003년 9월 12일

## 2. 부자세습이 아닐 경우

부자세습이 아니라면 아마도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자를 후계자로 선택할 것이다. 경제발전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감안하면 전문기술관료(technocrat)일 가능성도 크고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를 고려하면 군부의 지도자일 가능성도 있다. 전자일 경우 북한에서 위로부터의 변화의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변화과정상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가지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소련 및 중국처럼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한 사례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 같이 밑으로부터의 강력한 개혁요구가 전면적인 체제전환으로 이어진 사례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볼 때 북한체제의 변화도 변화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상징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현재 사회의 모든 구조는 국가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며 개인들도 국가가 규정해 놓은 사회관계망 속에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밑으로부터의 조직적인 저항세력의 형성이 철저히 봉쇄되어 있고 정치적 모순이나 경제적 비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주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서 밑으로부터의 주민 봉기가 발생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

한편 위로부터의 변화에는 정권 내 개혁파가 존재해 엘리트간에 파벌 및 노선갈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금까지 파벌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왔다.<sup>99</sup>

99 민족통일연구원 편,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

첫째, 북한의 경우 반세기 이상 동안 권력교체없이 부자가 장기 집권하고 있어 집권자가 선호하지 않는 엘리트들의 등용이 봉쇄되어 왔다. 둘째,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구소련에서와 같이 전임자에 대한 격하운동이나 대안적 노선을 혁명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다. 또한 현재의 권력엘리트 구조는 이미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와 더불어 형성된 것이어서 엘리트집단 내에 파벌이 형성되기 어렵다. 셋째,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 구소련에서 나타난 다원주의나 중국에서 모택동의 대립통일의 원칙과 같은 경쟁적 사상이 병존할 수 있는 토양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는 유일사상, 유일노선만 있을 뿐이지 대안적 노선이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북한의 권력엘리트 가운데 체제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위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변화의 동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그 자체가 주는 경제적 비효율성에 덧붙여 정권의 폐쇄주의 때문에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경제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 경제위기로 인한 체제붕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체제 내에 작은 숨통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동의를 의한 지배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점진적으로 경제를 개방하여 어느 정도 동의를 확보하는 반면 정치적으로는 더욱 더 통제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잠정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이 꾸준히 지속되는 한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결국 현 상황에 비추어 북한에서 위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아래에서의 불만을 의식하여 위에서 변화를 수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이는 체제유지를 목표로 한 정책대응적 내용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 지도부는 현재 사회주의의 기본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제한적 변화는 체제유지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경제난 해소의 일환으로 추구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직후 잇따른 자연재해 때문에 식량난·에너지난·생필품난·외화난 등 총체적인 위기양상을 보여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시기에는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을 외칠 정도로 경제위기는 체제위협으로까지 치닫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을 통해 사회주의원칙 고수를 거듭 천명했다. 199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고난의 행군’ 정신을 본받자는 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을 요구한 데<sup>100</sup>이어 1월 24일 김정일은 전당 당일군회의에 보낸 서한,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를 통해 “오늘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경제문제와 인민생활을 풀기 위한 투쟁에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며 경제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101</sup> 그는 1997년 말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최후

100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가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1997년 1월 1일.

101 김정일,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274-287.



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사회주의 강행군’을 제시했다. 이어 1998년 9월 헌법개정과 함께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되고 새 내각이 출범함으로써 김정일의 경제정책은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시기 새로 등장한 구호가 ‘강성대국 건설’이다. 북한은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 대해 김정일이 “선대 국가수반 앞에 조국과 민족앞에 다지신 애국충정맹약이며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시려는 담대한 설계도”라고 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이 김정일정권의 목표임을 선언했다.<sup>102</sup>

즉, 강성대국건설론은 요약하면 사상강국·군사강국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이 이미 사상강국, 군사강국은 이루었으며 남은 과제는 경제강국 건설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를 추켜세우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는 것”<sup>103</sup>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전문기술관료의 중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문기술관료들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융통성이 있다. 물론 북한의 전문관료는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김부자의 권력 세습체제를 강화시켜 온 인물들이어서 체제개혁적 사고를 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104</sup> 특히 김정일은 물질세계보다는 정신사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후계자로서 공인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김일성이 창시했

102 최철남·동태관·전성호, “정론: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103 『조선중앙방송』, 1999년 7월 13일.

104 전현준·안인혜·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97.

다는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 풍부화했다는 ‘업적’이며 사회주의 쇠퇴 원인을 분석한 그의 저술들은 하나같이 “물질을 중시하고 사상을 소홀히 하는 과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사상 측면을 “우선적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충성심이 강한 관료가 권력엘리트로 등용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권력엘리트의 성향이 실리주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권력의 정통성의 기초는 김일성이 의거했던 카리스마적 정통성에서 점차 사회·경제적 업적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정통성(rational legitimacy)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합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이며 융통성을 갖춘 전문기술관료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정일은 제한적이고 신중한 개방정책을 채택하겠지만 개방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이에 조응할 권력엘리트의 필요성 또한 증대될 것이다.<sup>105</sup>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김정일체제가 무너질 경우 다음 지도자로는 김정남·김정운 같은 애들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성택의 큰 형이 수도방위도 맡는 3군단장이고, 작은 형도 군단장급인 데다, 노동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으로 조직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성택은 지금 사실상 북한의 제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sup>106</sup>

하지만 김정일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 갑자기 후계자를 내세워야 할 경

105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8.

106 『중앙일보』, 2003년 7월 5일.

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장성택을 후계자로 내세울 이유가 없다. 장성택이 후계자가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잇는 또 다른 후계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 후계자가 전임자들에 대해 충성을 바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김정일이 향후 10년 정도는 권력을 유지하고 그러는 동안 후계자를 양성한다고 상정하면 후계자의 후보로는 지금의 연령으로 40대 이하의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당 비서들은 대부분 1920년대생으로 80세에 가깝다.<sup>107</sup> 당 중앙위원회의 부장급 인사들 중에서 정하철 선전선동부장은 1933년생, 김양건 국제부장은 1938년생, 오극렬 작전부장은 1931년생, 채희정 문서정리실장은 1924년생으로 나이가 많다. 김동운 39호실장, 림상중 38호실장, 리광호 과학교육부장, 강관주 대외연락부장 등은 정확한 연령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앞의 사람들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8월에 선출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염기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리하일 군사부장, 노명근 재정경리부장이 선출되지 않았는데, 염기순과 리하일은 1935년생, 노명근은 1912년생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부장급 대우를 받는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 가운데 유력 인사로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비롯해 최춘환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히택 경공업부 제1부부장, 주규창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림동옥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리봉익 총무부 제1부부장 등이 있으나 이들 모두 연령 하

107 계웅태 공안담당 비서는 1925년생, 김국태 간부담당 비서는 1924년생, 김기남 교육담당 비서는 1926년생, 김중린 근로단체담당 비서는 1924년생, 전병호 군수담당 비서는 1926년생, 한성룡 경제담당 비서는 1923년생이다.

나만으로도 후계자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장성택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만 1946년생으로 50대이다.

직할시·도 당위원회 간부로는 리영복 남포직할시 당 책임비서, 김시학 개성직할시 당 책임비서, 리태남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연형묵 자강도 당 책임비서, 리수길 양강도 당 책임비서, 김운기 황해남도 당 책임비서, 노배권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에서 중앙검찰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리길송,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총리에서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로 이동한 홍성남 등이 있으나 모두 노인이다.

내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전체 평균연령은 내각 쪽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젊다. 특히 리광근 무역상은 1954년생으로 전문기술관료 가운데 주목할만한 인사이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대 중반에 독일주재 이익대표부 참사를 지냈으며 조선축구협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으로는 중앙당 과장급 인사나 내각 부처의 부상 이하의 인물들에 대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김정일이 사상무장과 함께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군사분야임을 감안할 때 군부쪽 인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체제유지의 관건이 “총대위에 놓여 있다”는 ‘총대 철학’을 자주 피력해 왔으며 현지지도의 대부분을 군 부대시찰에 할애하고 있다. 군사 중시주의는 향후에도 김정일 체제 유지의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의 측근으로 군부실세는 10여명을 선정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주로 혁명 2-3세대에 속하는 인물들로서 김정일보다 나이가 많거나 연배가 비슷한 60대이다. 이들이 앞으로 북한군 핵심으로 군사정책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총정치국장 조명록 차수는 1928년생이고 총참모장 김영춘 차수는 1936년생,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차수가 1933년생이다. 모두 70을 넘긴 나이이다. 1970년대 총정치국장을 역임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무와 평양방어사령관 박기서 차수는 1920년대생이다.

김정일의 현지도를 자주 수행하고 있는 총정치국 조직 부국장 현철해 대장도 1934년생이고 총정치국 선전 부국장 박재경 대장도 1933년생이며 장성택의 맏형인 3군단장 장성우 차수도 1935년생으로 70세이다. 이들보다 젊은 보위사령관 원응희 대장도 1939년생이고 기계화 군단장 김명국 대장도 1940년생으로 60대 중반의 나이이다.

최광, 오극렬, 조명록 등의 대를 이어 1995년 공군사령관에 오른 오금철 상장만 1947년생으로 상대적으로 젊다. 그는 북한 공군 간부 양성학교인 김책 공군대학을 졸업하였고 전 정치국원이었던 오백룡의 아들로 ‘성분’도 좋으나 전도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의아한 인물은 백세봉이다.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그는 2003년 8월 3일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처음 대의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9월 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1기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1998년의 헌법 개정으로 지위와 권한이 크게 강화된 국방위원회에 진입한 것은 국정에서 그가 중용될 것임을 시사한다.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한 뒤 비밀에 부친 채 ‘당중앙’이라 부르고 북한이 가명을 즐겨 쓰는 것을 고려하면 베일에 싸인 백세봉이 갑작스럽게 국방위원으로 등장한 것이 후계구도와 상관있을지도 모른다.<sup>108</sup>

108 보도에 따르면 백세봉은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수 공업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의 당 책임비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2003. 12. 14.

## V. 결론

북한은 2003년 8월 3일 김정일시대 2기를 이끌어 갈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를 치루어 북한 역사상 가장 젊고 가장 많이 교육 받은 대의원들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했다. 또한 내각을 개편하여 총리를 포함한 70대 각료들을 젊은 기술관료들로 교체했는데, 각료중에는 40-50대가 포함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단행된 세대교체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 셈이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현재는 북한 핵문제 김정은이 자신의 후계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을지 모르나 북한은 조만간 혁명을 계속 이어서 지도할 새로운 지도자의 필요성을 맞게 될 것이다.

북한은 ‘령도의 계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령도의 계승성’이란 결국 ‘수령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문제로,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단순히 아버지의 권력을 계승한 통치자가 아니라 수령의 사상과 능력을 계승한 후계자로서 통치하고 있다.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부자세습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에서 제시된 북한의 후계자론은 이론으로서의 일반성이나 정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대를 잇는 후계자를 합리화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가 등장할 경우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하고 그의 후계체제를 확립할 때 동원된 후계자론이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후계자론의 골격은 북한에서 신성불가침인 주체사상과 수령론 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후계자론은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 후계자의 요건,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일성체현론, 세대교체론, 준비론 등이 주

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후계자론에서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대를 이어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 데서 최고의 책임을 지며 최대의 지휘권을 가지는 영도자이다. 후계자론의 이론적 모체가 되는 수령론에서의 수령과 같이 후계자도 당이나 국가기관의 특정한 직책이나 직위로서가 아니라 혁명에서의 지위와 역할로 규정된다. 후계자가 대를 잇는다고 할 때 그것은 본질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그런데 수령은 추대나 취임하는 제도화된 직위가 아니므로 후계자는 수령의 사망 즉시 혁명수행의 최고 영도자라는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계자는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필요할지 모르나 논리적으로는 전임 수령이 차지하고 있던 국가권력직에의 취임이 급하지 않다.

한편 후계자의 지위는 수령에 의해 결정되어 상당기간 동안 수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시기와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 나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수령의 지위를 차지하는 시기로 구별된다고 한다. 후계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수령을 받들고 수령을 보좌하여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충실히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시기가 있고 계속해서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시기가 있다. 이와 같이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에서 일정한 차이가 생기는 두 시기가 있게 되는 것은 수령의 영도가 실현되고 있는 때에 후계자의 추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유로 제시된다.

북한은 후계자 문제 해결에서 후계자로서의 필수적인 품격과 자질을 손색없이 갖춘 인물을 내세우는 것과 후계자가 영도를 실현할 수 있는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전자에 관해 후계자

론은 후계자를 인물 본위로 선출하는 것이 대원칙이며 후계자가 지녀야 할 특성으로 이른바 ‘김일성체현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체현론’이란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모든 것을 체현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김일성에게 충실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후계자가 지녀야 할 제일의 덕목으로 지도자로서의 일반적인 자질보다 수령, 즉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요건으로 제시되는 것은 수령과 후계자의 세대적 관계가 동일 세대가 아닌, 서로 다른 세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곧 ‘세대교체론’으로서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완성시켜야 하는 영도자이므로 수령과 함께 혁명활동을 해 온 세대가 아니라 수령의 다음 세대에 속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인물을 후계자로 내세우게 되면 그의 영도기간이 오래 계속될 수 없어 또 다시 후계자를 추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와 같이 수령이 자주 교체되면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세대교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준비론’이다. ‘준비론’은 후계자가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령 생존시에 결정되어 수령에 의해 일정기간 육성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논리로서 후계자 선출의 시기에 대한 것이다.

후계자가 수령 생존시에 선정되어 일정한 준비기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지적된다. 첫째, 수령의 영도밑에 후계자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울 수 있고, 둘째, 수령이 뜻하지 않게 퇴임한 다음 후계자를 추대하면 수령의 영도가 일시적으로나마 중단되거나 후계체제가 공고화되지 못한 틈을 타 권력쟁탈을 노리는 야심가들이 준동할 수 있으며, 셋째, 후계자가 수령을 직접 보좌함으로써 수령의 노고와 심려를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수령론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영도체계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라면 ‘후계자의 유일적 령도체계’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계승·완성하기 위한 영도체계라고 할 수 있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대를 이어 계승하는 것은 현실에서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은 후계자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당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후계자론은 후계자는 처음에 당의 영도자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북한에서 혁명운동이 수령에 의해 영도되고 수령의 영도는 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주장과 관련있다. 따라서 등소평이나 강택민은 당총서기직을 후계자에게 이양하고 군권은 유지하였으나 북한의 경우 논리적으로는 수령 생존시 당총비서직을 후계자에게 물려주기 쉽지 않다. 중국과는 달리 김일성이 당총비서직을 유지하면서 아들에게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먼저 물려준 것은 현실적 필요를 고려한 결정이겠지만 논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현실적으로 보면 김정일의 대를 잇는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부자세습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이 가운데 부자세습을 선택하는 경우는 전임 집권자에 대한 충성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고 부자세습이 아닌 경우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적임자를 선택하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국기들의 몰락을 전임 집권자들에 대한 후임자의 배신 탓으로 돌리면서 후계자의 배신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세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혁명의 혈통’을 중시하고 있다.

자식들 가운데에서는 우선 장남인 김정남이 꼽힌다.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김정일이 2001년 1월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를 데리고 다녔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하지만 김정남의 승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은데, 부정적인 시각은 그가 2001년 5월 위조여권을 소지한 채 일본에 입국하려다가 강제추방된 이후 크게 부각되었다. 그래서 최근 후계문제와 관련해 김정남의 이복동생 김정철이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과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입수된 북한 인민군 내부 문건으로 보아 김정철의 생모 고영희를 이상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장남 김정남을 제치고 김정철을 후계자로 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반면 1988년부터 2001년까지 13년간 김정일을 수행하며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철보다는 3남인 김정운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영희가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그 병이 악화되어 중태에 빠져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일 경우 그의 병환은 자식들의 후계자 지명 여부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자세습이 아니라면 아마도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자를 후계자로 선택할 것이다. 경제발전 때문에 전문기술관료(technocrat)일 가능성도 있고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 때문에 군부의 지도자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현재 강성대국건설을 내세우고 있는데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전문기술관료의 중용이 필요하다. 김정일 권력의 정통성의 기초는 김일성이 의거했던 카리스마적 정통성에서 점차 사회·경제적 업적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정통성(rational legitimacy)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다. 합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이며 융통성을 갖춘 전문기술관료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정일이 향후 10년 정도는 권력을 유지하고 그러는 동안 후계자를 양성한다고 상정하면 후계자 후보로는 지금의 연령으로 40-50대 이하의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당 비서들이나 당 중앙위원회의 부장급 인사들은 대부분 1920-1930년대생으로 연로하다. 김정일의 측근 군부실세로 평가되는 10여명이나 내각의 인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연령으로는 중앙당 과장급 인사나 내각 부처의 부상 이하, 군부의 상장 이하의 인물들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의 인물은 백세봉이다. 비밀에 싸여있는 그는 최고 인민회의 11기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그의 갑작스런 등장은 후계구도와 관련있을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달중·스칼라피노 공편 『아시아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서울: 법문사, 1989.
- 김민·한봉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김유민 『후계자론』. 출판지 불명: 신문회사, 1984.
-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출판지, 출판사 불명, 1989.
- 김태서 『북한의 후계체제와 김정일』. 서울: 일해연구소, 1987.
- 리성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민족통일연구원 편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영철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사회정치적 생명』.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9.
- 사회과학원·김일성종합대학 편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제1권 위대한 사상리론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 사회과학원·김일성종합대학 편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

지, 제2권 위대한 정치가].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인민들속에서 제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탁 진·김강일·박홍제. 「김정일지도자 제2부」, 평양: 평양출판사, 1994.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655호.

함치영. 「계속혁명에 관한 주체적 리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2. 논문

강석승.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본분.” 『근로자』, 1979년 4월호.

곽승지. “북한의 후계자론과 권력승계 과정,” 『안보연구』, 제23호 (1993).

김 분. “북한의 정치엘리트 층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3월 3일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_\_\_\_\_.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자.” 황해제철소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59년 9월 4일 『김일성저작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항일혁명투사들, 혁명가 유자녀들과 한 담화 1992년 3월 13일, 1993년 1월 20일, 3월 3일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새로 배치된 사로청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도 사로청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1972년 12월 16일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 <마이니찌신봉>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2년 9월 17일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일군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여야 한다.” 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천군 상업관리소 소장 과 한 담화 1991년 9월 19일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를 1986년 5월 31일 『김일성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_\_\_\_\_.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30돐 기념대회에서 한 보고 1975년 10월 9일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_\_\_\_\_.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12월 19일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6월 24일 『김일성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정일. “청년들을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무장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년사업부 및 사로청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1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_\_\_\_\_.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1월 8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4월 28일 『김정일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올해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일군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 8월 23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년 4월 14일.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 내자.” 창립 45돐을 맞는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6월 1일.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년 12월 25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리오송.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근로자』. 1976년 2월호.
- 리주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의 불패성의 담보.” 『근로자』. 1991년 8월호.
- 박태상. “북한문화상의 김정일 묘사 특징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2호 (2002).

양범직. “북한의 권력 승계 문제와 경제 정책 변화.”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편 『북한 경제의 오늘과 내일』.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최용현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강화하는 것은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 『근로자』, 1991년 10월호.

### 3. 기타

『광각경』

『교도(共同)통신』

『뉴스위크』

『讀賣新聞』

『로동신문』

『産經新聞』

『월간 조선』

『조선일보』

『조선중앙방송』

『중앙일보』

『AERA』

『조선일보 인터넷』